

200년 전 광주 근현대 역사 실감난 재현



미리 가본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김오성)이 재개관을 앞두고 마무리에 한창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5월 재개관으로 시민을 맞을 역사민속박물관은 개관 33년만에 완전히 새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 당초 이달 31일 재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개관 일정은 두 차례 연기됐다. 조광철 학예연구사와 함께 전시실 내부를 둘러봤다. 개관 전이라 사진 촬영은 금지됐다.

박물관 1층 로비에 들어서니 전통문양 모양과 전통 창살을 형상화 한 천정 LED등,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한 느낌의 천정 조형물이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다가온다.

1층은 남도민속실. 기존의 딱딱했던 디스플레이는 잊자. 밝은 색조의 실내와 통유리를 이용한 진열장의 시원스러운 배치가 눈에 확 들어온다. 입체감 있는 민속실은 이전 공간보다 훨씬 커진 느낌을 준다.

최신기법을 적용한 전시실답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실린더 모양의 진열장도 눈에 띈다. 백화점의 쇼윈도우같은 친근감을 주는 이 진열장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며, 마치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수장고를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해소해주는 듯 하다.

국내에서 첫 시도한 것으로 유물이 실제 수장고에 들어있는 것 같은 관람효과를 준다고 한다. 1층은 진열장으로, 2층은 광주 역사와 관련한 영상을 비춰 1, 2층에서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농업 관련한 전시물은 기존의 도구 중심에서 벗어나 각종 씨앗을 전시해 보여주는 등 전혀 다른 포맷으로 배치됐다. 공간 사이 여백은 빈 공간으로 살려두는가 하면 자투리 여백을 활용해 실제 모형 텃밭을 만들어 배치하는 등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오는 5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1987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해 33년만에 새 이름, 새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한 역사민속박물관은 확 트인 전시공간에 광주역사 속 중요 공간들을 실감나게 재현하며 관람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박물관이 가질 수 있는 '강박적' 채용에서 벗어나자.

어촌 풍경 전시공간에서는 물고기 형상을 바닥에 투사해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보여주어 흥미를 더한다. 전통문화를 강요하듯 접근하기 보다는 아름답게 보여주고 관심과 재미를 주도록

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역사민속박물관 개편의 핵심인 2층은 광주 역사를 보여주는 광주근대역사실이다. 박물관 측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다 보여주는 것은 이번 개편에서 번별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광주의 중요 명소를 중심으로 특화시켜 접

한 도시개발 과정의 애환과 5.18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다.

광주 읍성의 복원된 누문동 자리에 있었던 누각인 '절양루'도 1/4 크기로 축소해 재현해 그 의미를 되살렸다. 광주 대표 역사 공간이었던 관산관을 맵핑 영상으로 재현하고,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장, 지방 수령의 의식인 망궐레도 구현했다.

일제강점기 시대 총장로 광주우편국, 광주극장, 남장상회, 청야상점, 1930년대 총장로에 있었던 가로등인 영랑등 등의 실감난 재현 공간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학관에서는 광주학생운동 역사를 10분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없는 별들'이라는 영상을 상영한다. 1960년대 금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베어진 350년 수령의 금남로 4가 단풍나무 뿌리도 전시장에 부활했다.

이밖에 장애인을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 모유 수유실이나 독서공간, 카페 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김오성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1987년 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33년 만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재탄생하게 됐다"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절양루, 광주읍성과 호남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정의로우며 우리 고장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준비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국내 첫 시도 최신기법 원통형 진열장 1층 남도민속실·2층 광주근대역사실 강박적 채용 벗어나 시원스런 배치 광주읍성·1930년대 거리 구현 눈길 3년여 리모델링 거쳐 오는 5월 재개관

록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물 수준에 맞춰 전시관을 옛 집처럼 구현해 놓은 디테일이 돋보인다.

조광철 학예연구사는 "1980년대 박물관이 산업화시대 농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의 박물관은 도시민들에게 남도 문화취리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전달을 위해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지정문화재인 상여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힌 조 학예연구사는 "굉장히 예쁜 상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색감을 최대한 밝히시켜 아름다운 상여

를 구현했다.

1900년대 사라진 조선시대 광주읍성(현재의 총장로, 금남로 일대)을 실제 느낌이 나도록 복원해 관람자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2대의 키오스크를 통해 광주읍성 안 건물 위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광주공원 안의 성거사지 오층석탑과 동구 지산동 백천사지 오층석탑만 남고 사라진 200년 전 도시 광주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엔 휘어져 흘렀던 광주천 물줄기도 생생히 볼 수 있다.

광복 후 역사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그릇에 그려낸 엄마의 꿈들

류미숙 개인전 '엄마의 밥상'
내달 6~17일 도청 윤선도홀

그릇에 그려낸 색의 향연. 류미숙 작가의 개인전 '엄마의 밥상'이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다.



류미숙 작가



'나의 꿈'

식당을 운영했던 모친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뒤 50여년간 사용했던 어머니의 그릇에 그림을 그려 사모곡을 표현해 내고 있는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엄마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을 펼쳐낸다.

작가가 지난 4년동안 습관처럼 매일 달려 왔던 그릇 작품들은 지난해 아트페어로 선보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작품에 담긴 스토리가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입소문을 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접시 위에 만개한 꽃과 새를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한 '행복한 날들', 나비와 꿀벌이 날아오고 암벽타기, 패러글라이딩이 펼쳐지는 '엄마의 꿈', 파도와 돌고래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인상적인 '자유' 등 25점을 선보인다.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부른 마음으로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어떤 그릇은 물감이 이리저리 섞이고 흘러

어제 했던 작품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릇에 그림을 표현하기까지 수십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릇 하나하나에 엄마의 흔적이 있었기에 그만둘 수 없었다."

작가노트에는 그동안의 수고와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엮여있다.

"꽃과 나비, 새와 벌, 그리고 우리들의 꿈... 어머니의 소망도, 나의 꿈도 그릇 위에 담았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화폭에 쏟아져 내렸다..."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청동회, 조형2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마스크 100여장을 나눠준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사두었던 마스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업 지원사업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20년 예술분야 기업·사회적경제조직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단체를 오는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일반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예비, 초기, 성장 세 단계로 나눠 62개사(팀)와 예술상품 개발·유통지원 25개사 등 총 7개 분야 87개사(팀)를 선발한다.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원래 해당 기업은 지원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자부담률을 5%로 낮췄다.

4월 중 있을 발표심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참조. /연합뉴스

선정 기업에는 각각 1,200만~8,000만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773-2522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4154-8277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